

건강칼럼

강박증의 특성과 욕망과의 관계

불안증이란? 생기는 원인은?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다. 불안이다. 왜 불안이 오는 것일까? 무엇인가 불확실한 것이 계속 될 때에 마음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확실한 원인이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다면 공포를 느낄 것이며 불안하지는 않다. 불안하다면 대응할 수 있는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면이 있다.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불안은 방어적 역할을 하며 침입에 대한 경고이며 신호이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무언가 준비를 하게 하여 준다.

불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먼저 현실불안이 있다. 누구에게나 느끼는 불안이다. 깊은 산속에 혼자 걷는다면 야생동물이 나타나 몸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온다. 아무튼 곳에 혼자 걷는다면 나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하다. 주식이 떨어지거나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 불안을 느낀다.

다음은 신경증적인 불안이 있다. 병적으로 오는 불안이다. 정신분석적인 면에서 자세하게 세분하였다. 먼저 공포와 관련된 불안으로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서 나타나는 불안이다. 즉 큰 개이거나 여러 마리의 개가 오는 경우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이다.



김수범  
우리회의원장

다음은 히스테리적인 불안이 있다. 과거의 억압된 정동이 특정한 조건없이 이유도 없이 나타나는 불안이다. 외상에 의하여 억압된 동정이 원인이다. 정신적 갈등, 분열, 정신속의 변화, 정신분열, 쾌락추구와 저지, 정신의 방어, 과거 유년기의 기억과 관련된 억압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은 리비도와 관련된 불안이다. 자아에 대한 불안으로 리비도가 자아에 들어가서 정체되면 변화하여 불안이 되는 것이다. 즉 포도주가 오래되어 변하면 식초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리비도와 관련된 불안은 성적욕망과 대체가 된다. 성적욕망이 해결이 안 되는 성교중단이나 금욕적 생활, 성적불만족, 성적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할 때, 종교적 이유, 발기불능, 피임 등으로 위축될 때 불안이 만들어진다.

불안을 느끼는 곳은 어디인가? 불안은 자아, 초자아, 이드 중에 자아에서 느끼는 것이다. 자아는 억압의 장소이며, 나르시즘의 장소이며, 불안의 장소이다.

좀더 자세히 말한다면 불안은 자아, 이드, 초자아 사이에 발생한다. 자아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언제인가?

불안은 리비도(성욕)의 운명으로 방출되지 못한 리비도가 불안으로 변하는 것이다. 리비도는 충동의 요구가 드세거나 만족을 요구할 때 불안을 느낀다. 또 충동의 만족이 이루어질 때도 자아가 불안을 느낀다.

충동의 요구가 만족이 되어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이 생긴다. 충동의 만족은 항상 부분적 충동의 만족이다. 충동은 절대적, 완전한 만족을 모른다. 만족이 되면

될 수록 더 큰 만족을 요구한다. 불안은 리비도의 충족과는 상관이 없이 자아에게 불안을 일으킨다. 리비도, 성욕 자체가 자아에게 불안을 줄 수 있다. 또 불안은 쾌락원칙이 교란될 때 발생한다. 충동이 쾌락을 초과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자아는 적절한 선에서 쾌락을 즐기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충동은 경계선을 넘는 쾌락이다. 충동요구나 만족이나 모두 쾌락원칙을 교란시키며 불안이 발생한다.

또 충동이 과잉과 상실시에 나타나는 불안이다.

과잉시에는 박해불안이라고 한다. 충동이 어떤 대상을 겨냥하여 공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하여 나타나는 불안이다.

상실시에 나타나는 상실불안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과 공격한 대상이 사라질까 불안하여 나타나는 불안이다.

사상체질의학적으로는 꼼꼼하고 내성적인 소음인에게 불안한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

소양인들에게는 불안보다는 건망증적인 면이 많고, 태음인에게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불안증이 나타나며, 태양인에게는 분노의 증세가 많다.

사설

전북형 일자리 만들기 기필코 성공해야

전북형 일자리 만들기가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데 그게 어찌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지혜를 모아놔야 하는데 말이다. 그것도 다른 광역시도와 차별화될만큼 돋보이는 프로젝트여야 하는데 말이다. 도지사는 저번에 '일자리 100일 플랜'을 말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기를 했었다. 지역 특화 일자리 등 4대 전략을 세운 것이며 17개 과제 대상을 이야기한 것이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책'을 도입하려 했던 것도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이제 시일이 좀 지났지만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었다. 그리고 정부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23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격려이다. 전임 정부 때 도내 일자리 창출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것을 각성해야 한다. 그때는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까닭이다.

전북도가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에 나서고 있다지만 젊은이들의 불만 소리가 여전하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반비례하여 관철은 일자리가 적어지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북형 일자리는 글자 그대로 다른 광역시도를 상대로 패터지는 경쟁이 아닐 수 없게 돼 있다.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 쪽으로 많은 일자리를 가져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전주나 익산보다도 군산형 일자리를 먼저 창출해야 할 만큼 절박한 나날이다.

도민들이 전북도에게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돈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일자리 창출이며 계획 발표는 미덥지 않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제 취업자들도 바라는 바는 한결같이 관철은 일자리와 고용 안정이다.

본보는 도내 근로자의 40%가 넘게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고민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전북도는 취직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전북형 일자리 창출의 성공 신화를 고대하고 있다.

지역발전사업 발굴했으면 추진해야 맞다

지역 발전 발굴 사업들을 본격 추진해야겠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대안했는데 지금은 조용하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 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 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사업들을 발굴하고 전북도가 공표했던 거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해 짚어볼 바가 있다. 발굴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말이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지역 발전과 연결돼야만 하는데 그게 없으니 답답하다.

전북도의 역량 발휘가 있어야겠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희망하며 발굴한 사업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한 것이 적지 않다. 이같은 지적은 사업 발굴을 책임지는 게 결코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에 있다.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서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발전 발굴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도내 홍보용에 그치고 말았다.

전북도의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 뒷심 발휘가 늘 아쉽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사업들을 발굴한 것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 사업발굴은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체에만 의미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 구상이 실제로 실현돼야만 한다. 사업 추진의 담보성을 획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회와 정부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각각의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좀더 욕심을 내야 한다.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겠다.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똑같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이다.

젊은이들은 지역발전 발굴사업들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고용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듭 말하거니와 전북도의 사업 발굴은 청사진 그리기로 끝나버리면 곤란하다.

그 어떤 사업이고 발굴은 목적이 아니다. 전북도는 사업의 실제 추진을 위해 더 힘차게 뛰어오라.

독자제언

도로의 불청객 로드킬 안전운행이 최선

요즘 들어 운전 시 하루가 멀다 하고 도로 위에 야생동물 사체들을 보게 된다.

따뜻한 날씨로 야생동물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주행하는 자동차에 야생동물이 치어 죽는 로드킬 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로드킬은 야생동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시야에 갑자기 나타난다. 동물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핸들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찰과 해당 관리기관에서 시설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각자가 로드킬 사고에 대비하여 과속금지 및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로드킬 사고 방지법으로 ▲동물 발견 즉시 전조등을 끄고 경적 울리기 ▲사고 발생 시 과도한 핸들 조작 금지 ▲야생동물 출몰지역에서 서행하

기 ▲사고가 난 동물을 치우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는 행위 금지 등이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였다.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고 경찰이나 해당지역 국토관리사무소 또는 도로공사에 사고 위치와 내용을 알려 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가 사체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차선 변경, 급제동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도로에서 동물의 사체를 발견할 경우에 콜센터나 해당 자치단체 등에 연락해 신속하게 치우도록 해야 한다.

도로 위 안전사고는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처법과 안전운행 습관으로 오늘도 안전 운행하길 바란다.

백요섭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총기난사 희생자 추모 헌화 바라보는 시민들



2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식물원 방문객들이 모스크 총기 난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헌화를 바라보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웰링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공격용 소총과 군대 스타일의 반자동 총기 및 고성능 탄창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